

3》후마 시간강사 해촉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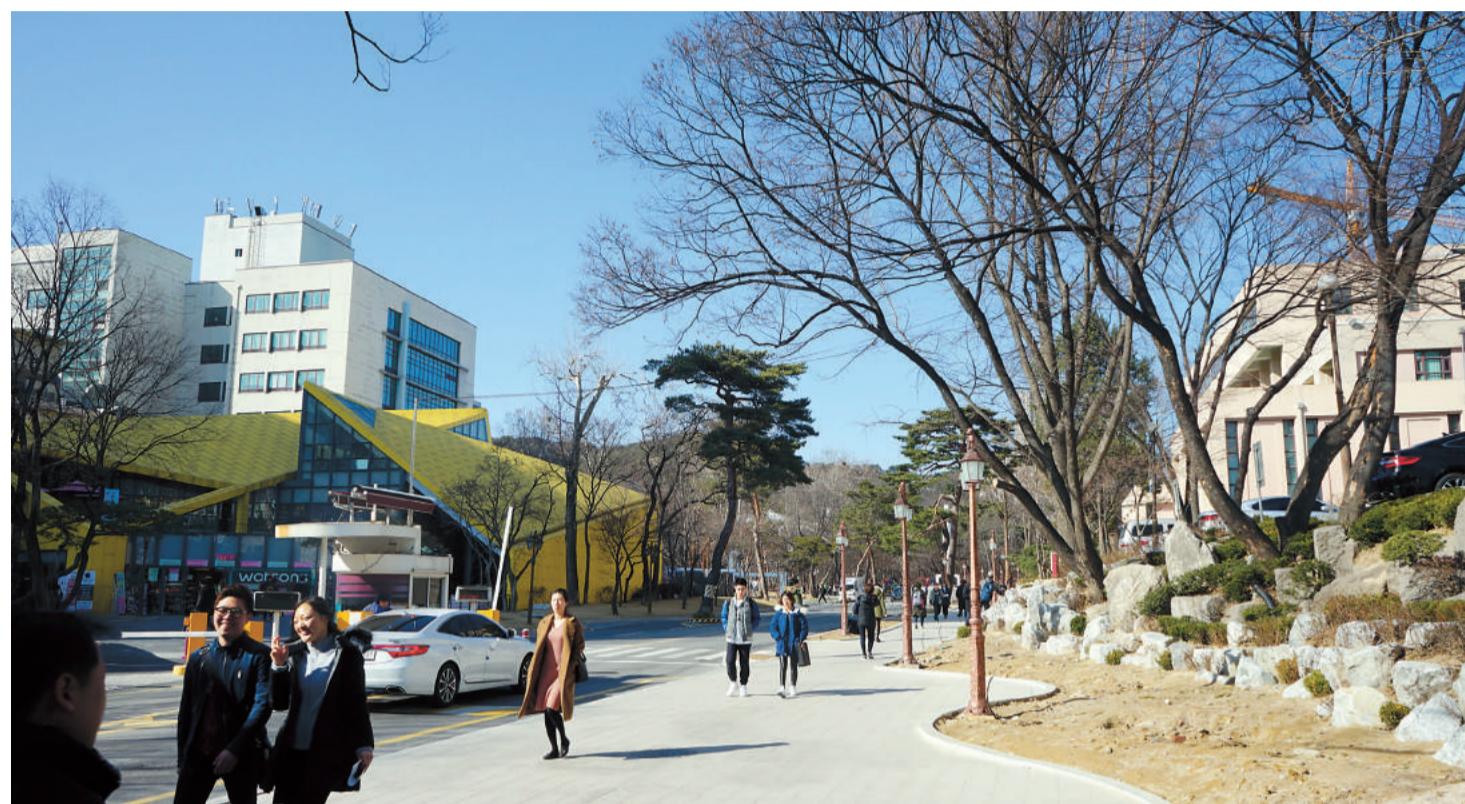


8》리걸클리닉 무료 법률상담



휴 · 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신청기간 : 2016.03.01(화)~2016.03.31(목)
신청장소 :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증)
문의안내 : 02-961-0055



네오관 앞 보행 통로
오는 15일 공사 완료

오는 15일이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네오르네상스관 앞 보행로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 보행로의 계단과 경사를 제거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폭이 3m로 확대돼 기존에 비해 약 두 배로 넓어졌다 (사진=최재원 기자, 기사=류제원 기자)

후마니타스 칼리지 최초의 대형 개편, 과학 중핵교과부터 수강신청까지 전면 변화

후마, 교육과정 개편

김도업 기자 wogmd567@khu.ac.kr
박기윤 기자 kyoont7230@khu.ac.kr
유정아 기자 yuangel@khu.ac.kr

#. 2011년 신설돼 출범 6년차를 맞는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처음으로 큰 폭의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제3의 중핵교과인 '과학중핵교과' 과목의 추가부터 '독립연구', '자유교양학트랙' 등 다양한 개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위 사항들은 강좌신청, 졸업학점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후마에서 공지한 교육과정 개편 내용과 현재 경과 정도를 비교해봤다.

#중핵교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인문·사회교양'으로 대표되던 중핵교과에 자연과학 영역이 추가된 점이다. 신설된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은 후마 최초의 '과학 중핵교양'이다. 지난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인 만큼 과학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1학기 과학중핵교과는 8-90명 정원으로 양 캠퍼스 총 10개의 강의가 열렸다. 유 학장은 "올해 과학 중핵교과에는 신입생만 참여한다"며 "휴학생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강좌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 수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서울캠 기준 과학 중핵 수업은 5개 강좌로, 450명이 들을 수 있다. 과학 중핵은 8학기 모두 개설되므로, 단순 계산하면 4년 동안 3,400명이 들을 수 있으므로 올해 서울캠 신입생이 3,147명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입생은 내년에도 약 3천 명 정도가 입학한다. 따라서 내년 과학 중핵 강좌를 추가하지 않으면 강좌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유 학장은 "기존 중핵교과를 개설하며 과학 중핵까지 추가로 열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기존 중핵교과 강좌 수를 줄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1 강좌도 마찬가지다. 지난 학기 영어1은 83개(서울캠 42개, 국제캠 41개)가 개설됐지만 올해

영어1은 29개(서울캠 8개, 국제캠 21개) 강의만 개설됐다. 반대로 신입생만 들을 수 있는 대학영어는 88과목(서울캠 55개, 국제캠 33개)이 개설됐다. 이 때문에 기존 재학생 중 영어1 강좌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유 학장은 "작년 수강신청 최종 결과를 보면 수업인원이 부족해 가장 많이 폐강된 과목이 영어1이었다"며 "행정실이 수요를 예측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증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문제는 올해 추이를 지켜본 후 올해 말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4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학점포기제도 유예 주도한
강정수(경영학 2009)



"행정실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을 돋기 위해 존재한다"

이수형 기자 dlitbd112@khu.ac.kr

#. 올해 초 2014년 발표된 학점포기제도 개정안을 전 학번에 일괄 적용하겠다는 학사지원과 측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2014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부족할 뿐더러 학사 지원과 측의 공지가 미흡했다'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들 중 개인의 몸으로 직접 경영대학 행정실과 학사 지원과를 동분서주한 끝에 4년의 개정 유예기간을 이끌어 낸 강정수(경영학 2009) 군을 만나봤다.

임 등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모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이 문제를 학생 개인의 학사行政 문제에서 시스템 상의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행정실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을 돋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강군은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에서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에서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

더불어 그는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논리가 통용되는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며 "학생 지원처장님과 총학생회, 대학주보 등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이 말은 꼭 기사에 넣어 달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곤 한 걸 풀어진 표정으로 그는 "식사대접하고 싶다는 분부터 함께 시위하자고 말씀하신 분까지 많은 감사한 이들의 응원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강정수 군은 결코 특별한 이가 아니었다. 다만 그가 분투한 3개월에 모두 박수치는 이유는, 학생 개인에게 부당한 권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것이 좋은 선례로 작용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생기 있게 움직이는 건강한 학생자치를 만드는데 양분이 돼주길 기대해 본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칸트의 답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⑩

임승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의 관심사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의 세 질문으로 요약했다. 이 세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논리학에서 '정언명령'이란 조건적

이지 않은 문제, 즉 어떤 대상에 대하여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문제를 뜻하듯이, 정언명령은 조건을 달지 않은 명령을 뜻한다. 칸트는 정



임마누엘 칸트는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복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서만 행위하라"고 말했다

언명령을 조건부 명령인 '가언명령' (hypothetical imperative)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언적 명령이나 정언적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 두 명령은 모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지만, 행위의 필연성을 다르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할 때, 그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병에서 빨리 낫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것이다. 즉, 이 예에서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이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라'라는 명령이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는데, 이 명령은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타당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행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명령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명령이 바로 정언명령이다. 이 경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65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추가) : 3월 17일(수)~23일(수)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
특전 : 해외 취재, 장학금 등 ※면접일정 추후 공지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페터리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